# 마귀의 확대경과 예수님의 망원경

## (엡6:5~9)

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귀의 확대경과 예수님의 망원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망원경은 렌즈를 사용해서 먼 데 있는 물체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똑똑히 보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또, 확대경은 그 반대로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볼 수는 있지만 너무 작아서 분별이 어려울 경우에 크게 보이게 만드는 렌즈입니다.
여기에는 돋보기라든지 현미경 같은 것들이 속해 있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확대경의 배율은 한 다섯 배 정도, 크게는 30배 정도까지 배율을 높일 수가 있고, 가시광선 하에서의 광학 현미경은 최대 1000배 내지 2000배까지 배율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원경과 확대경을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늘 쓰고서 생활을 한다고 한 번 가정해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이 13세기부터 오랜 시간 발전과정을 거쳐 17세기쯤에 네덜란드의

레벤후크와 로버트후크, 형제인 것 같아요, 이 둘에 의해 최초로 300배 배율의 현미경을 만들었을 때, 이들이 그 300배 배율의 현미경으로 확인했던 게 자기 치아 속에 있는 박테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17세기에 요즘 같은 칫솔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치아를 닦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치아 속에 박테리아가 보이는데 끔찍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점심 먹고 양치질을 곧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가 많지 않겠어요? 또, 바쁘게 막 돌아다닐 때.
그렇게 바빠서 양치질을 못한 상태, 설사 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입 속을 들여다보니까 흉측하게 생기기 그지없는 박테리아들이 한 움큼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입으로 어디 연애할 때 뽀뽀라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1000배로 확대된 현미경을 안경처럼 쓰고 생활한다고 할 때, 내 손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24시간 잠시도 씻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식당에 가서 식탁을 보면 그 식탁 위에 있는 세균 때문에, 아니면 냉면을 먹을 때 냉면 속에 있는 세균이 1000배로 확대된 현미경으로 보이는데, 냉면을 먹겠습니까? 어느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일인 거예요.

또, 망원경을 쓴다고 생각해보면, 확대경을 쓰면 멀리는 전혀 안 보이죠, 근데 망원경은 가까이 있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똑똑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안의 모든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원경을 안 쓴 사람이 옆에서 볼 때는, 지금 육안으로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가까이에 있는 상황은 전혀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만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이 상황과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말합니다, 망원경을 쓰고 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망원경도 현미경도 쓰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보면

서 잘 살고 있는데 웬 망원경이고 현미경이냐?'
아닙니다, 망원경도 현미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가정한다고 말했어요, '현미경을 쓰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망원경을 쓰고 일상생활을 한다면'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망원경 안 쓰고 사는 사람 없고, 현미경 안 쓰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대경인 현미경을 안경처럼 쓰는 일은 인류 전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마귀 때문에 타락하게 된 뒤로 인류 모두가 지금 쓰고서 살고 있는 게 확대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식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24시간 목욕탕에 들어가서 손 씻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안 보면, 그냥 이 손으로 밥 먹고 세수하고 하루에 세 번 정도 씻고, 이렇게 살아도 무방합니다.
전혀 괜찮을 일들에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확대경을 쓰는 바람에.
손에 세균이 많지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걸로 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뱃속에도 세균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미경을 쓰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의 이빨과 주둥이가 다 보이는데.
그 흉측한 이빨과 주둥이가 다 보이는데 카펫을 어떻게 깔고 삽니까? 못해요.
서양에서 여자들을 만나면 경의의 표시로 손등에 뽀뽀를 하잖아요, 여자 손등에 뽀뽀할 수도 그 남자의 입으로 뽀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입속의 박테리아를 본 뒤에 모든 사람의 박테리아가 다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뽀뽀를 받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게 마귀의 일이란 거예요, 마귀 일.

그러면 망원경을 쓰고 살아도 제대로 못 보면서 사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대로 못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손바닥의 세균처럼 다 무덤덤하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면 될 일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봐야 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안 보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망원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사도바울의 말씀은 마음이 세상에 대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되게 이상해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무슨 생각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노예로서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상전으로서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말이 거슬립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 육체의 상전이라는 말이 특이합니다, 육체라는 말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육체의 상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상전에게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부연설명까지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이라는 이 말 자체가 눈이라는 말과 노예로서 행동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생긴 걸 보면 당시의 노예들이 타성에 젖었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일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예도 그런 정도는 봐줘야지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물건 취급을 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주인에게 뭘 얼마나 열심히 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근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라는 얘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주인을 섬기라는 얘기에요.
이 노예와 상전의 관계를 오늘날로 갖고 와서 상사나 부하직원, 사장님과 직원들, 이런 정도의 관계로 환원시켜서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슬리는 것은, 요즘의 상사와 부하직원 사장님과 직원들, 이런 관계와 상전과 노예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약관계에요, 계약.
내가 싫으면 그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전과 노예의 관계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게 환원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하자면, 아브라함 링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미국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남북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을 결정한 그 순간에 사도바울이 나타났다면, '노예들이면 상전에게 주께 하듯 하면 될 것이지, 무슨 해방을 하겠다고 전쟁까지 일으킨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링컨에게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링컨이 본 흑인노예들의 삶보다 사도바울이 본 2천 년 전 로마제국 아래서의 노예들이 훨씬 더 유복한 생활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사도바울은 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부하직원으로서 사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장님이 시키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 몸부림친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그러한 노력과 정반대되는 것 같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노예제도를 완전히 묵인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비참한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던 그들이 겨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노예한테…
그 이전에는 사보타주라도 했어요,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근데 이제는 상전에게 주께 하듯 노예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차원의 해방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링컨이 보는 해방과 전혀 다른 겁니다.
사도바울이 볼 때는 노예도 노예고, 상전도 노예입니다.
인간사회가 만들어낸 노예제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육체의 노예상태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육체의 오감으로 만난 상황에 대해서 묶여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보자면, 노예도 육체로 만나는 상태에 대해서 오감을 통해 묶여있고,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귀족이나 왕까지도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방이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예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은 이 세상

의 육체로부터 해방된 사람인 노예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된 상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의 해방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해방될 때, 그렇다면 이왕 내친 김에 노예제도까지 없애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당장에 안 되더라도 그런 싹이라도 보이면 좋지 않겠냐? 근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와 상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육체에 주어져 있는 신분의 차이, 아까 그랬잖아요,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 육체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신분의 차이는 사도바울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가 노예 신분으로 살아도, 육체가 상전의 신분으로 사는 것보다 절대 덜 행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로서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도 덜 기뻐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귀족이나 왕이나 자유인인 상태에서 노예를 부리고 있을 때, 이 상전의 신분과 노예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볼 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보람된 삶을 위해서 노예 신분이라고 상전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손바닥을 보면서 밥 먹고 악수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차이가 손바닥에 있는 세균 정도의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평생을 노예로 사는 것과 평생을 상전으로 사는 것,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안 보인다는 게.
근데 사도바울이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뭐 그리 큰 차이냐?
정말 이 communication의 불통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확대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노예 신분이라고 해서 네가 노예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존재가 노예가 아니라 네 역할이 노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왕이라고 해서, 네 존재가 왕이 아니라 역할이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존재인 것처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역할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가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벤허라는 영화에서 쥬다 벤허로 나오는 주인공이 찰톤 헤스톤인데,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역이 로마의 호민관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도 나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고 호민관은 말하자면 장군이에요.
그리고 쥬다 벤허는 노예선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결정합니다, '노예 될래? 빌라도처럼 총독 될래?'
그러면 배우들이 어느 것 되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노예 되고 싶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노예로 산다고 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내 배역이 노예면, 노예로서 왕에게 하는데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노예라는 육체적인 역할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배우가 노예로서 상전을 모시는 역할을 할 때, 그 영화 속에서의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노예 역할을 충실히 합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노예 역할을 준 감독의 마음에 맞으려고 노예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마귀의 확대경을 쓰고 보면 박 근혜 대통령과 저와의 신분의 차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근데 주님의 망원경을 쓰고 보면, 이 땅에서 그분이 대통령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차이가 안 보입니다, 손의 세균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 나를 놓으시고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만 집중하게 됩니다.
아! 굉장한 일 아닙니까?
십자가에 마음을 들여서 십자가 너머의 세계,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만들어놓으신 길을 따라 마음이 쭉 가다보니까 보좌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이 세상의 내 손에 쥔 현금보다도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이게 성령님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 우리 마음이 앉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보면, 대통령과 동회직원과의 차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손의 세균처럼.

근데 대통령과 동회직원의 차이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대통령과 동회직원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귀의 확대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건희 씨와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놓고 장사하는 여러분의 차이, 이거는 비교하면 웃음거리 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이 건희 씨와의 차이가 차이로 보이는 이유가 마귀의 확대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나와 세계적인 삼성그룹의 이 건희 씨와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그룹을 운영하는 이 건희 씨나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이런 삶처럼 보이는 세상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행동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분으로 하는 내 행동은 하늘을 보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온 것이고, 하늘을 못 보고 하는 행동은 삼성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일본을 움직이는 것이라도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주부가 나를 주부로 앉혀놓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망원경으로 보면서 행동할 때 그 설거지가 하나님 마음에 더 드는 것이고, 삼성그룹이 몇 백 억의 흑자를 남기며 운영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그까짓 것 대단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 본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망원경을 쓰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이 어색하게 보이고, 상전과 노예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상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확대경을 쓰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주어진 신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를 쥠으로써 확대경을 벗고 망원경을 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담 이후에 마귀 때문에 쓰게 된 확대경을 벗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쓰게 되는 망원경을 쓴 채로 하늘만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 모든 차이를 발아래 밟아 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